

호랑이 꿈

## S#1. 재운 방 / 밤 (악몽)

어두운 방, 푸른 빛이 도는 창문 밖으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유영하듯 보이는 방의 풍경.

방안 텔레비전 불빛과 살짝 열린 방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실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다.

방안은 어린아이의 방에 낡은 대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방바닥에 깔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는 아이가 보인다. **재운(5세, 남)**이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재운의 손과 발, 움찔거린다.

시달리는 듯한 표정으로 뒤척이는 재운...

그림자 하나가 재운의 위로 드리운다.

(호랑이 소리)

그르릉

## S#2, 재운 방 / 밤

눈을 뜨는 재운. 힘겹게 숨을 고른다.

S#1과 달리, 방문을 향해 모로 누워있다.

재운의 시선으로 보이는 방문.

살짝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거실의 빛과 가족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재운(o.s)**

(힘없이)

엄마...

**cut in.**

거실, 텔레비전 옆, 반쯤 열려있는 재운의 방문이 보인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다. 문틈으로 재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엄마”

**cut back.**

방 안,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재운,

텔레비전 불빛이 재운에게 묻는다. 빛이 나는 쪽을 돌아보는 재운.

낮은 텔레비전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어두운 실루엣.(뒷모습) 할머니(72세, 여)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잔기침하며 배를 껏고 있다.  
[인서트] 껏질이 껏기는 배, 길게 벗겨지는 껏질.

할머니를 보던 재운,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낸다.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문구를 조용히 중얼거리는 할머니.  
그 뒤로 조용히 일어나는 재운, 방문을 향해 걸어간다.

[인서트] 바닥에 펼쳐진 동화책(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거실문이 닫히면서 동화책에 달  
던 빛이 줄어든다.

-타이틀-

### S#3. 거실/ 밤

방과 달리 밝은 거실. 엄마(37,여), 아빠(42,남), 누나(8,여)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  
다.

엄마, 누나는 소파에 앉아있고 아빠는 누나 쪽 소파 아래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있다.  
재운은 소파 위에서 엄마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다.

살짝 열려있는 방문. '재운이 방' 이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엄마(o.s)

재운아

엄마를 올려다보는 재운.

재운의 시선으로 올려다본 엄마의 얼굴, 엄마는 시선을 텔레비전을 보며 말한다.

엄마

(텔레비전을 보며)

많이 늦었어. 가서 자야지.

재운

나 안졸려.

몸을 일으키는 재운.

**엄마(o.s)**

너무 늦었다니까.

고집을 부리는 재운,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다.

**누나(o.s)**

너 무서워서 그러지?

짜증 난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는 재운.

누나는 재운에게 시선 하나 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엄마(o.s)**

무섭다니 뭐가?

**재운**

아니야 그런거

**누나(o.s)**

재운이 맨날 나쁜 꿈 꾸대.

텔레비전을 보는 아빠의 뒷모습.

**아빠**

**(텔레비전을 보며)**

재운아, 그런 건,

잘 때 눈감으면 다 사라져.

별거 아니야.

소파에 등을 기대는 재운.

재운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실 풍경,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과 텔레비전 옆에 있는 살짝 열려있는 재운의 방문.

문을 바라보는 재운.

살짝 열린 방문. 방 안의 텔레비전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데...

**할머니(o.s)**

재운아?

방에서 재운을 찾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혹스러운 재운의 얼굴.

**할머니(o.s)**

재운이 거기 있니?

재운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실 풍경.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과 텔레비전 옆에 있는 살짝 열려있는 재운의 방문.

엄마가 방문을 보고는 재운을 바라본다.

**엄마**

재운아 할머니가 찾으신다.

텔레비전을 보던 누나와 아빠가 크게 웃는다.

방문 틈 사이로 재운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어두운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 **S#4. 방 / 밤**

배 조각에 포크가 푹하고 찍힌다.

재운에게 배를 건네는 할머니.

피하는 재운. 할머니를 등지고 눕는다.

## 할머니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배를 한입 베어 무는 할머니,  
힘겹게 몇 번 씹다가 기침을 한다.  
배를 손에 도로 뺏어내고는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한다.

방문을 바라보는 재운.  
살짝 열린 방문 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인서트] ‘탕-’ 소리를 내며 꺼지는 재운 방 텔레비전

텔레비전 불빛도 없이 아주 어두운 방, 창을 통해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다.  
거실의 소리가 작게 들린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재운. 뒤쪽에서 할머니가 방문을 닫고 재운에게 다가온다.

## 재운

(작은 목소리로)

저 엄마랑 잘래요.

할머니, 재운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재운,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찬다.  
빠져나온 재운의 발. 재운의 발을 덮는 이불.

## 할머니

호랑이가 잡아갈라

재운 옆에 눕는 할머니, 재운을 끌어안는다.  
더 웅크리는 재운.

재운을 토닥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 할머니

(나즈막히)

호랑이야 울지마라  
우리 재운이 잠 못 잔다.

고요한 방 안에 바람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자장가가 맴돈다.  
눈을 꼭 감는 재운, 할머니를 피하듯 웅크린다.

할머니의 자장가가 멈추자  
눈을 꼭 감고 있던 재운, 한쪽 눈을 뜬다.

창가 아래, 모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뒷모습. 잠꼬대하듯 웅얼거린다.  
재운이 일어난다.  
어두운 할머니의 얼굴과 주름진 손.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재운.

재운의 뒤통수 위로 그림자가 하나가 속- 지나간다.  
뒤를 돌아보는 재운,

아무것도 없는 푸른 빛의 창문. 바람 소리만 들린다.  
그 때, 들리는 거실 가족들의 웃음소리.  
거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재운.  
할머니를 넘어 방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간다. (프레임 아웃)

방바닥에 펼쳐진 동화책을 지나가는 재운의 발.

### 할머니(O.S)

콜록, 콜록!

문을 열던 재운.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본다.

어두운 방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  
열린 창문을 통해 바람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누워있는 할머니, 계속 기침을 한다.  
할머니를 뒤로하고 방문이 닫힌다.

#### S#5. 거실 / 밤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  
(\*가족들의 위치 : 엄마, 누나는 소파에 앉아있다. 아빠는 소파에 등을 대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다.)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재운. (프레임 인)  
소파 위에 올라가 엄마와 누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는다.

누나  
(재운을 옆으로 밀며)  
아 뭐야, 저리 가!

재운, 엄마를 넘어서 옆으로 간다.  
텔레비전을 보며 크게 웃는 아빠.

엄마(o.s)  
재운아 왜, 안자고 나왔어?

엄마 옆자리에 앉는 재운.

#### [인서트] 텔레비전 화면

방문을 바라보는 재운.  
닫혀있는 방문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을 보는 재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서서히 눈을 감는 재운.  
졸려서 고개가 까닥인다.

엄마 쪽으로 쓰러지는 재운  
엄마 무릎 위에 고개를 떨군다.



## S# 6. 거실 / 밤 (악몽)

눈을 뜨는 재운.

아까와 달리 어두워진 거실. 텔레비전 불빛이 거실에 강하게 감돈다.  
살짝 열려있는 방문.

눈이 부신 텔레비전 화면.

텔레비전에 정신 팔린 듯 웃기만 하는 엄마, 아빠, 누나.  
얼굴에 텔레비전 불빛이 강하게 묻는다.

일어나려는 재운.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몸만 들쭉일 뿐, 움직이지 않는다.

맥없이 꿈틀거리기만 할 뿐인 재운의 손과 발.

**재운**

(울먹이며)

끄으, 끄으

가족들을 불러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재운, 힘겹게 헐떡일 뿐이다.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깔 웃는다.

텔레비전 화면에 웃는 방청객의 모습이 보인다.

혼란스러워하는 재운, 눈을 감았다 뜬다.

하지만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는 재운의 몸.

살짝 열려있는 방문

**호랑이 괴물(v.o)**

(포효)

그르르렁!

놀라는 재운.

거실에 호랑이 소리가 맴돈다. 유영하듯 보여지는 어두운 거실.

호랑이의 발 구름 소리가 재운을 향해 다가온다.

재운의 위로 드리우는 호랑이 괴물의 그림자, 잡아먹을 듯 ‘그르릉’ 거린다.  
별벌 떨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재운.

문고리가 철컹이며 돌아간다.  
열리는 문.

## S#7. 거실 / 밤

재운 위로 드리웠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방에서 할머니가 나온다, 손에는 배가 담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한다.

숨을 헐떡이는 재운.  
별벌 떨어 있는 손과 발.  
재운 눈으로 거실을 둘러본다.

### 할머니(o.s)

재운아?

재운의 시선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가족들.  
그 뒤로 방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재운을 바라보고 있다. 할머니의 어두운 실루엣.  
서로 마주 보는 재운과 할머니,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들이 있다.

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열려있는 방문.

바라만 보고 있는 재운.

방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재운에게 향하는 할머니.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재운 앞에 선 할머니.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재운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할머니.  
재운의 발을 덮는 이불

### 할머니

우리 재운이, 호랑이가 잡아갈라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재운.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닫히는 방문.

상체를 일으켜 일어나는 재운, 숨을 고른다.

재운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을 집어 든다.

닫힌 방문.

### S#8. 재운의 방 / 밤

열리는 문.

문이 열리면서 꺼진 텔레비전 앞에 모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잔 기침하는 할머니.

이불을 끌고 할머니에게 향하는 재운. (프레임인)

방바닥에 놓인 동화책, 닫혀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재운의 발

할머니 옆에 앉는 재운, 할머니를 내려다본다.

달빛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게 보인다.

주름진 할머니의 잠든 얼굴과 주름이 자글한 손

호랑이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 창문을 바라보는 재운.

열려있는 창문

재운, 창문을 닫는다. 바람 소리가 끊기고 고요해진 방.

할머니의 기침도 끊긴다.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재운.

빠져나온 할머니의 발.

할머니의 발을 덮는 이불.

잠에든 할머니 옆에 재운이 눕는다.

할머니를 지긋이 바라보다 눈을 감는 재운.

어둡고 고요한 방, 이부자리에 서로 마주 보며 누운 재운과 할머니.

할머니의 코골이가 나지막하게 들린다.

끝.